

##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에너지 동향 및 시사점

강명구(산업은행 조사분석부 부부장)

작성일: 2012년 9월 24일

### ■ 투르크메니스탄의 탄화수소의 원유 등가 가치<sup>1)</sup>는 716억 톤

- BP(British Petroleum)의 발표에 의하면, 러시아, 이란, 카타르 다음의 세계 4위 천연가스를 보유
  -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·가스부 카카겔디 아브둘라예프(Как а г е л ь д ы А б д у л л а е в)에 의하면, 투르크메니스탄의 탄화수소(석유+천연가스)의 원유 등가 가치는 716억 톤
    - 원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208억 톤, 50.8조m<sup>3</sup>로 평가
    - 현재 160개의 유전 및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, 그 중 60개가 채굴 중
  -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50% 이상이 남부 마리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가스전인 갈크니스(Г а л к ы н ы ш) 가스전에 매장되어 있음(매장량 약 26조m<sup>3</sup>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평가)
  - 카스피해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에너지자원 평가치는 원유 120억 톤, 천연가스 6.5조m<sup>3</sup>로 평가
    - 현재 카스피해의 법률적으로 인정된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110억 톤의 석유, 5.5조m<sup>3</sup>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

### ■ 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 증가

- 2012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2012년 1월~8월 에너지연료 수출은 2011년 동기에 비해 12.8% 증가
  - 2012년 1월~8월 원유와 가스 컨테이너 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5.7%, 천연가스 생산은 10.1% 증가
    - 자동차용 벤진 6.3%, 폴리프로필렌 9.1%, 액화가스 21.1%, 윤활유 14.4% 등 석유제품의 생산도 증가

1) TOE(Ton of Oil Equivalent), kl, t,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. 1TOE는 원유 1톤(7.41배럴)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, 석탄 1.55톤, 천연가스 1,150m<sup>3</sup>에 해당.(무연탄 1톤은 0.46TOE, 유연탄 1톤은 0.66TOE, 전력 1kWh는 867kcal로서 1TOE는 전력 11,534kWh에 해당)

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·천연가스 생산·수출·매장량

에너지원	항 목	2010	2011	증감률, %
원유(천 배럴/일)	생산	216	216	0.0
	소비	104	108	3.8
	수출	112	108	△3.6
	확인매장량(10억 배럴)	0.6	0.6	0.0
천연가스(10억 m³)	생산	42.4	59.6	40.6
	소비	22.6	25	10.6
	수출	19.8	34.6	74.6
	확인매장량(조m³)	13.4	24.3	81.6

자료: BP, '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', June 2012

- 천연가스 수출 증대를 위해 기존의 파이프라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건설을 추진 중
  -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제2의 러시아 행 파이프라인 건설
  -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인 Nabucco, AGRI(Azerbaijan-Georgia-Romania Interconnector) 건설
  - AGRI 가스파이프는 그루지아를 경유해 루마니아, 헝가리 및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, 2010년 9월 4개 국가에서 서명을 한 상태, 총 109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동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
■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자원의 매장량 증가로 FDI와 프로젝트 파이낸싱(PF: Project Financing)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
-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해상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
  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해상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, 그리고 천연가스의 액화시설, 탈황시설 건설 등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
  -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남부 마리지역에 올로탄(Turkmenistan Yolotan) 가스 탈황공장 건설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적극적인 PF 참여와 동 PF시 한국의 기업이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
- 우리나라의 투르크메니스탄 유전 및 가스전 탐사 및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상 간의 국빈 방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
  - 양국 정상간 국빈 방문은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래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 현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음. 따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

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 모색이 필요  
예를 들면, UAE원전사업, 카자흐스탄 발하쉬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, 양국  
정상간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서 수주

#### ※참고자료

- Туркменистан оценивает свои запасы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 71,6 млрд. нефтяного эквивалента
- Темп роста добычи нефти и газового конденсата за 2012 год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составил 105,7 %